

아쉬운 봄의 끝자락 '문화가 빛나는 밤'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글라주노프의 추억'

내일 문예회관 소극장... 바이올리니스트 권명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글라주노프의 추억'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오네긴 홀로네이즈 작품 24'로 문을 연다. 푸슈킨의 소설 '에페게니 오네긴'을 토대로 한 오페라 중 파티 장면 등에 등장하는 음악이다.

이어 경쾌한 터키풍의 선율로 '터키 협주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5번 작품 219'를 바이올리니스트 권명이 협연한다. 권씨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념음악회로 유명한 무지페어라인



권명

황금홀에서 명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와 콘서트 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피날레 곡은 국내 연주에서 처음 만나기 어려운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4번'을 선곡했다.

차이코프스키를 잇는 후기 러시아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로 꼽히는 글라주노프의 대표작으로 그만의 개성 있는 서정성과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콘서트밴드 창단연주회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호남콘서트밴드가 3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올해 결성한 '호남콘서트밴드'는 김정대 전남대 외래교수가 대표를 맡았으며 광주, 목포 등 관악기 연주자 4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 지휘는 노수환씨이며, 회원들과 함께 클라리네트 구희운,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협연한다.

첫 무대 하조의 곡 '울림피아다'를 시작으로 구희운씨가 맡은 아놀드의 'Sonatina for Clarinet solo', 서현일씨가 조지 거슈윈의 '렘소디 인 블루'를 연주한다.

또 회원들은 주제의 '시인과 농부 서



노수환

곡, 알프레드 리드의 '아르메니아의 댄스', 나오히로이와의 'American Graphity' 등을 들려주며 관객들과 어우러진다.

공연은 온 주자의 '수자 행진곡 축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씨는 경희대 기악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체코 오스트라바 지휘 디플롬 과정을 마쳤다. KBS 전국관악경연대회 연주부문 단체 금상(1977, 1979) 등을 수상했고 현재 안양대, 전남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10-7570-31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공지능과 예술' 미디어아트 토크

광주문화재단 6월 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인공지능과 예술'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토크를 진행한다.

이행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예술의 교차점', '미래의 인공지능 혹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수용에 관해' 등 2가지이다.

특히, 기존 강연자 발제와 패널 토론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강연자는 김재희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신승백·김용훈 미디어아티스트, 성용희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4명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100명 전화 모집한다. 모집·문의 062-670-74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행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예술의 교차점', '미래의 인공지능 혹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수용에 관해' 등 2가지이다.

특히, 기존 강연자 발제와 패널 토론이 아닌 시민들도 참여하는 열린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강연자는 김재희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신승백·김용훈 미디어아티스트, 성용희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4명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100명 전화 모집한다. 모집·문의 062-670-74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만가 나날

내일 광주 곳곳서 펼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봄 끝자락을 잡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31일 찾아온다.

'영화를 즐기는 영화로운 시네마천국'을 표방하는 '필름정거장'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THE 오월, 우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DJ 문대근, 장원나 듀오의 진행으로 관객의 사연소개와 추억의 OST를 함께 공유하는 '영화가 빛나는 밤에', 아날로그밴드 '바다프로젝트'와 오월의 정춘 '꽃님이 밴드'의 공연과 토크가 이어진다.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영화 제작과 연출,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조광수 감독과의 토크다. 동성 결혼한 김조광수 감독은 1984년 광부들과 게이 레즈비언의 특별한 우정과 뜨거운 연대를 그린 영화 '런던 프라이드'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밖에 비디오 라이브러리와 추억의 비디오 상영관 '필름영화방', 가족팔찌와 머리끈을 만들 수 있는 가족공예 체험, 손간판 포토존과 영화특수촬영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필름정거장 <https://www.facebook.com/A-filmstation>. 문의 062-366-1895.

'마을이 무대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지고 있는 '1930양림살롱'에서는 나눔 캠페인 '서서평 커피'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 이름을 딴 '서서평 커피'는 방문객들로 인



'1930 양림살롱'의 '서서평 커피' 캠페인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양림동 주민들을 위해 커피값을 기부하고 있다.

광주극장 '필름 정거장 - THE 오월, 우리' 공연과 토크쇼

양림살롱 '서서평 커피'... 광산 하우스콘서트 '오월의 노래'

해 불편을 겪는 양림동 주민들에게 건네는 감사 인사다. 입장권 개념인 텀블러를 5000원에 구매해 양림동 일원 카페에서 최대 3잔까지 음료를 이용하고 남은 금액은 제휴 점포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된 수량만큼 주민들이 무료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현재 제휴 카페는 이야기배달부동개비, 515카페, 프랄린하우스 등 3곳이다.

또 이승규 작곡가, 2인조 밴드 '가리수봉', '남만두오' 등이 참여하는 '쌀롱콘서트'는 각각 한희원미술관, 카페 밀당, 커피뷰는집에서 열린다. 양림오거리 상설전시장에서는 '양림 기억장고-연제나 꽃처럼 피어있는 나의 고향'전이, 양림커뮤니티센터 지하 공연장에서는 걸그룹 김시스터

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함께하는 '양림극장'이 열린다. 문의 070-4239-5040.

광산문화회관은 이날 오후 7시30분 '문화가 있는 날' 특별기획으로 '오월 판소리 토크 콘서트-오월의 노래'를 개최한다.

광산하우스 콘서트 19번째 무대이기도 한 이번 공연에서는 민주화운동 1세대인 임진택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 '오월의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10주년이 되던 1990년, 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벼 윤상원을 그리며 임씨가 창작한 작품으로 5월 18일 공수부대 투입부터 5월 27일 시민군의 도청 사수까지 열흘간의 사건을 다뤘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품의 후반부 '계엄군을 몰아낸 시민군'에서부터 마지막 장면 '사랑

과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까지를 고수 이재영의 장단에 맞춰 부른다. 입장료는 1000원(천원의 행복)이며 티켓 배부는 오후 6시30분부터다. 문의 062-960-8833.

광주시립미술관은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이상호·전정호 '응답하라 1987' 큐레이터 전시작품 설명회와 사진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후 4시와 7시 진행되는 전시설명회는 임종영 담당 학예사가 현재 전시 중인 판화·결계그림 의미와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 중인 만장을 들고 전시실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서구 농성동 하정음미술관은 '미술관 시네마' 프로그램으로 오후 6시30분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워'(What Dreams May Come)를 상영한다.

은암미술관은 문인과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후 3~5시 '문인화'를 주제로 옛 선비들의 기본적인 소양인 시·서·화의 집약체인 문인화의 세계를 살펴보고 수묵화의 미적 가치를 살펴본다. 또한 계산 장찬홍 작가가 참여한 문인화 시연을 통해 문인과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접수다. 문의 062-231-5299.

유·스퀘어는 오후 6시15분 야외광장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선사한다. 이번 음악회는 'HTUS PROJECT'와 함께한다. 'HTUS PROJECT'는 건반·기타·베이스·드럼·보컬로 구성된 실용음악 밴드로, 호남신학대 학생들이 결성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Up town Funk', 'Swing baby', 'Summer time' 등을 연주하며 시민과 어우러진다.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을 정갈하고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별급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